

보도시점 : 2024. 12. 18.(수) 14:00 이후(12. 19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12. 18.(수)

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, 파주~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

- 수도권 제2순환망 구축 74% 달성... 개통 하루 앞둔 18일 개통식 열고 유공 표창

-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~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.
 - 개통식은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,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,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.
 -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.
- 수도권 제2순환선(제400호선)의 일부인 파주-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. 총 연장은 19.6km로 사업비는 총 1조4,357억 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.
 -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, 주행거리는 약 5.4km 감소(25.0km→19.6km)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또한, 서울~문산, 구리~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, 2027년 김포-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,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특히,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% 구축을 달성* 하게 되었으며,

*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264.3km 중 194.5km 건설 완료

- 공사 중인 양평-이천 구간(19.4km)은 2026년에, 김포-파주 구간(30.6km)은 2027년까지 개통하고, 설계 중인 안산-인천 구간(19.8km)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.
-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인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“파주-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, 지역 산업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 - “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을 통해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 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수	(044-201-3889)
<협조>	한국도로공사 건설처	책임자	팀 장	이정희	(054-811-3070)
		담당자	차 장	정진우	(054-811-3071)

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구간)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~ 양주시 회암동
- (사업규모) 연장 19.6km, 4차로 신설
- (총사업비) 1조 4,357억원(공사비 1조 1,228억원, 용지비 3,129억원)
- (주요시설) 나들목 3개소, 교량 37개소(4.9km), 터널 9개소(8.1km)

□ 추진경위

- 2009. 6 :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(B/C 1.36)
- 2011. 11 : 타당성조사 완료(B/C 1.36)
- 2013. 10 : 기본설계 완료
- 2015. 12 : 실시설계 완료
- 2017. 3 : 공사착공
- 2024. 12 : 공사 준공 및 개통

□ 개통의미

- 파주~양주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74%를 구축*하였으며,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지역개발을 촉진

*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64.3km 중 194.5km 구축 완료

□ 기대효과

- 사회적 편익 385.55억원/년 절감, 주행거리 5.4km↓, 주행시간 17분↓

※ (거리) 25.0km → 19.6km (△22%) / (통행시간) 32분 → 15분 (△53%)

참고2

파주-양주 고속도로 개통 위치도



참고3

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위치도

